



기초단체장 후보 인물·정책 검증

신안·고흥·완도군수

■ 신안군수



김수용 (46) 우리당



김청수 (64) 민주당



고길호 (61) 무소속

Table with 3 columns for candidates: Kim Su-yong, Kim Cheong-su, and Go Gil-ho. Columns include: 현직, 학력, 주요경력, 병역, 재산, 주요공약 (3가지).

■ 고흥군수



진종근 (57) 우리당



박병종 (52) 민주당

Table with 2 columns for candidates: Jin Jong-gun and Park Byung-jong. Columns include: 현직, 학력, 주요경력, 병역, 재산, 주요공약 (3가지).

■ 완도군수



김종식 (55) 우리당



홍종기 (57) 한나라당



박현호 (54) 민주당

Table with 3 columns for candidates: Kim Jong-sik, Hong Jong-gi, and Park Hyun-ho. Columns include: 현직, 학력, 주요경력, 병역, 재산, 주요공약 (3가지).

DJ 조카·민주당·현군수에
예측불허 3파전 예고

■ 신안군수

김대중 전 대통령(DJ)과 민주당 한화갑 대표의 고향인 신안의 수장 자리를 놓고 DJ의 조카, 민주당 후보, 현 군수 3명이 맞붙어 어느 지역보다 뜨거운 열전을 벌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수용 후보는 DJ의 누님인 고 김매월씨의 막내 아들이다. 그는 신안군

화부장과 정당 생활에서 얻어진 경험을 신안을 잘 사는 부군(富郡)으로 만들겠다"며 출마를 결심했다. 김 후보는 경선에서 역시 DJ의 조카인 김관선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을 누르고 후보로 확정돼 주목을 끌기도 했다. 그는 "소금·영화(스크린)·스포츠가 함께하는 3S정책과 신안만이 보유하고 있는 천혜의 자원과 문화·역사 등을 접목시킨 5미시책을 적극 추진, 10만 신안시대를 열어 가겠다"며 구체적으로 "다이아트 섬 개발,

- 김수용 6개 권역별 연륙교 공사 추진
- 김청수 외자유치 총력 지역경제 활성화
- 고길호 친환경 고품질 농축수산물 개발

청과 전남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김 영배 국회부의장의 비서관을 시작으로 김 태식·박준규·이만섭 의원 등의 보좌관으로 활동하는 등 행정경험과 중앙인맥을 쌓아 왔다. 그는 "정신계승을 운운하면서 일부 세력이 정치생명을 연장하는 등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왜곡하는 현실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신안의 발전을 위해 6개 권역별로 연륙교 건설 노후현 대통령 재임 기간 내 착공, 신안지역 토지거래허가제 재검토, 노인 실버타운 5개 건립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 김청수 후보는 "40여년간의 민주

송공산성과 토성 유물 개발, 영상테마파크 단지 조성, 신안 영상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직 군수인 무소속 고길호 후보는 한화 갑 의원의 비서관, 민주당 신안군지구당 부위원장, 전남도의원 등을 지내다가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승리, 군수를 지냈다. 그는 "민선 4기 동안에는 이들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시킴은 물론 압해면 일대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 해양경찰학교 유치, 중형조선산업단지 조성, 송탄도 해상공원 조성 사업 등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안=조원남기자 wncho@kwangju.co.kr

우리당 현직 군수에
민주당 후보 도전장

■ 고흥군수

현직 군수인 열린우리당 진종근 후보와 이에 도전하는 민주당 박병종 후보가 치열한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여당의 진종근 후보는 과학기술부와 내무부에서 17년 동안 근무했으며 전남도 기획관, 관선 담양군수를 거치면서 지방행정을 경험했다. 그는 또 지난 2002년 무소속

시하고 우주항공축제를 국내 대표적인 과학교육축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축협 조합장 출신의 민주당 박병종 후보는 고흥군 도덕면 읍동에서 전형적인 민농의 둘째로 태어나 30여년 동안 축협조합에서 생활했다. 고흥축협 11, 12대 조합장을 지낸 그는 지난 2000년과 2001년 두 해 연속으로 고흥축협을 전국 최우수조합상을 받도록 이끌었으며 7대 전남도위원으로 당

- 진종근 인재육성 농업 경쟁력 강화
- 박병종 교육·문화·복지 시설 확충

으로 출마, 민주당의 장벽을 뚫고 74표 차이로 군수에 당선됐다. 그는 "군민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비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에서 17대 총선 직전 여당에 입당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 4년간 국비예산 확보 전국 군 중 1위를 차지하고 행정 각 분야 전국 최우수자치단체로 평가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4년 동안 우주항공산업 유치와 사회간접시설 건설 등 지역발전에 획기적 성과를 이뤘다"고 자부하는 진 후보는 "군민이 행복한 군정을 위해 민선 4기 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 농업발전, 학교교육지원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우주항공중심도시 건설의 비전을 제

선되기도 했다. 민선 3기 고흥군수 출마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과거 도내에서 최대 군세를 자랑하던 고흥군이 이제는 부도 직전이며 인구는 줄고 지역발전의 동력은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군수가 되면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이웃을 위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따뜻한 가슴으로 군정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사업기반시설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교육·복합·문화시설을 확충, 자식과 손자·손녀가 돌아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고흥=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공직경험 고향위해 쓸터”
‘경제 활성화’ 한목소리

■ 완도군수

완도군수를 놓고는 고위 공직자 출신의 후보가 맞붙어 화제다. 열린우리당 김종식, 민주당 박현호 두 후보는 모두 20여년 이상 행정공무원의 길을 걸다가 명예퇴직해 정치권에 뛰어든 인물. 이들은 공직 경험을 고향을 위해 쓰겠다는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수산회사의 대표 출신인 한나

카로 발전시켰다고 자부하고 있다. 김 후보는 "광주-완도간 고속도로와 신지-고금간 연도교 사업 착공, 고급-생일-고흥간 국도 승격 등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중앙 부처의 인맥과 군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 후보는 보길도가 고향으로 육사 30기로 졸업하고 대위로 예편, 완도부군수·영광부군수·무안부군수·광양부시장·전남도 자치행정과장·관광진흥과장 등을

- 김종식 SOC 확충·복지기반 마련
- 홍종기 관료·행정편의주의 규제 완화
- 박현호 체류형 관광산업 메카 육성

리당 홍종기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다.

현직 군수인 김종식 후보는 행정고시(24회) 출신으로 14년 동안 전남도청에서 근무하면서 지사 비서관, 공보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또 이후에는 완도·영암·신안부군수, 목포 부시장을 역임하다가 지난 2002년 6월 정년을 8년 남기고 명예퇴직,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그는 "선거 승리로 민선 3기 완도군정을 이끌어 오는 동안 드라마 '해신' 세트장을 유치, 500만 관광객 시대와 1천600억 원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시와 어촌의 만남' 행사를 통해 완도 수산물의 전국적 대중화를 실현했으며 완도를 세계적 스포츠 전지훈련의 메

역임하고 26년 만에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직했다. 그는 "살사는 완도, 너너한 완도, 변화와 개혁 속에 화합하는 완도 건설을 목표로 출사표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완도군수가 되면 12개 읍면으로 구성된 완도를 1일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연륙·연도교를 조기에 완공하고 노인복지시설과 동호인 체육시설을 확충할 것을 약속했다.

홍 후보는 "군청 내에 만연한 관료주의와 행정 편의주의를 타파하고 완도향내 상륙수입 등 환경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오네프빌' (One Pebble) in Munjeong-dong.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building and text: '들어오세요!', '마지막 분양 - 34평형', '2년 전 분양가로 내 집 마련하세요!!', '문의: 225-0070'.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오네프빌' (One Pebble) in Munjeong-dong.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building and text: '오네프빌', '문의: 225-0070', 'NAMIHAI'.